

아차차! 신분증 깜빡...환자들 '당황' 병원도 '진땀'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첫 날 광주 병·의원 둘러보니

신분증 가지러 발길 되돌리고 대기자 몰려 신분확인 생략도 젊은층이 잇고 오는 경우 많아...어르신은 모바일 앱 불편

“아이고 오늘부터 시행인지 몰랐네. 아픈데 집까지 다시 다녀와야하니 불편하네.”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첫날인 2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남구 일대 10개 병·의원을 둘러본 결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편 호소가 이어졌다.

신분증을 깜빡한 일부 환자들은 집에 다시 신분증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 의료진도 진료와 신분증 검사를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 중 고령자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젊은 환자들이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가 많았다.

남구 봉선동의 한 내과에는 오전 10시까지 다녀간 140여명의 환자 중 5~60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40대 젊은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줄줄이 대기 의자에 앉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최현욱(32)씨는 “요즘엔 휴대전화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보니 신분증은 물론 지갑도 잘 들고다

니지 않는다”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이 불편해서 오류로 인한 불편도 발생했다.

속이 안좋아 동네 내과를 찾았지만 신분증이 없던 박성귀(68)씨는 병원 직원의 도움으로 건강보험증 앱을 깔았지만 본인인증 오류가 반복되자 이내 포기했다.

박씨는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는데 이걸로 접수 가능하냐”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환자들이 몰려 바쁜 탓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병원도 있었다.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80여명의 환자가 접수했는데, 이중 10여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병원에선 신분증을 두고 온 환자도 기존대로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 절차만 거치면 진료접수가 가능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다고 접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광주시 북구 현대병원 원무과 벽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내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환자들의 원성이 높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에 신분증 확인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 신분증을 두고 온 어르신께는 휴대전화 앱도 직접 깔

아드려야 하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아직 헛갈린다”는 반응이다.

이날 병원을 찾은 이성원(여·45)씨는 “지인에게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증을 챙기긴 했지만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아픈 경우 엄마가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지, 치과나 한의원, 약국 등에 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지 등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신분증 제시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온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벌려준 사람과 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 추모비 44년 만에 건립

묘교 광주 송원여상 교정에 제막

5·18 당시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건의 희생자인 박현숙(18·송원여상 3학년) 열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건립됐다.

박 열사의 묘교인 광주 송원여자상업고교는 20일 교정에서 ‘박현숙 열사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박 열사는 항쟁 기간 계엄군 총격에 숨진 시민군들의 시신을 수습해 입관하는 일을 도운 것으로 알

려졌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 23일 옛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중 화순으로 관을 구하려 갔다가 버스를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 숨졌다.

제막식에는 송원여상 오준환 교장,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박 열사의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비에는 ‘꽃다운 꿈이 스러지고 아려오는 슬픔과 절망의 세월을 건너 불어오는 오월의 바람,

이제는 희망이다’는 문구가 담겼다.

박 열사의 언니인 박현옥 전 5·18유족회 사무총장은 “44년 소망이었던 추모비를 세워 마음을 빚을 떨어낸 것 같다”며 “유족의 역할을 학교가 대신 해주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서 학생 희생자를 조명하기 위해 상영한 기념공영 영상에서 박현숙 열사 대신 박 열사의 생전 사진을 사용해 반쪽을 썼다.

고 매년 양국의 위령제에 함께 참여했다. 2009년 제 60회 4·3 제주도 희생자 위령제부터 매년 40여 명의 조합원들을 인솔해 참여하고 2011년 31주기 5·18 위령식부터는 매년 3박 4일 일정으로 5·18 조합원 연수를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5년 5·18 35주기에는 오사카에서 일본인 800여 명이 참여한 35주년 기념집회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5·18국립묘역 역사관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

25·26일 이틀간 대촌동 드론공원

광주시 북구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 북구 대촌동 북구드론공원에서 '제4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회는 북구의 드론 인프라를 알리고 드론 콘텐츠 산업과 드론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새롭게 추가된 '유소년부'를 비롯해 '세미프로리그', '2부 아마리그', '3부 루키리그' 등 4개 리그가 운영되며 총 48개 팀이 참여한다.

첫날인 25일에는 개최식과 세미프로리그(8팀), 아마리그(8팀), 유소년부(16팀) 예선-준결승, 결승 경기가 열리며 26일에는 루키리그(16팀) 경기가 열린다. 시상은 리그별 1위~4위까지 상금 1400만원이 순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세미프로리그 정식 출범에 맞춰 열리는 이번 대회가 드론 축구 대중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드론은 미래산업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 드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북구를 전국에서 손꼽는 드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원 노동자들 “사측 단체교섭 촉구해달라”

노조, 광주지법 앞 기자회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호원지회(호원노조)가 사측에게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원노조는 2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이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호원 노조는 “사측이 복수노조장구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탈퇴공작을 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

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확정됐다”면서 “하지만 올해 8차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을 대표교섭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원노조는 “사측이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에도 교섭권이 확실히 호원노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법원에 교섭권 여부가 있음을 다시 신청하는 소송전을 벌일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야스다 마사시 JR서일본노동조합 전 위원장 들불상 수상

제19회 들불상 수상자로 일본인 야스다 마사시(62·사단) JR서일본노동조합(JR서노) 전 위원장이 선정됐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20일 JR서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대 활동의 본모기를 보여주고 전쟁반대·평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에 앞장 선 야스다 마사시를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우리 사

회에서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한다. 상금은 500만원이다.

야스다 마사시씨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금지운동’,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일본 평화헌법 9조 사수 운동을 선도했고, 지난 2013년에는 일본 요나구니섬 주민들이 주최하고 JR서노가 지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행사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초청해 위안부 피해자 위령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위령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대구지하철노조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